

頭無岳[두미오름]에 대하여

오 창 명*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頭無岳[두미오름]에 대한 옛 기록
3. 頭無岳의 해독과 의미
4. 頭無岳과 濟州島, 濟州人·濟州島人
5. 마무리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한라산(漢拏山)의 별칭 중 하나였던 頭無岳[두미오름]이 한라산의 별칭으로 쓰인 경우와 濟州島(제주도)의 별칭으로 쓰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頭無岳[두미오름]은 한라산의 별칭으로, 『고려사』 지리지에서 처음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① 漢拏……一曰頭無岳, 又云圓山(한라산은……두미오름이라고도 하고, 또 두리메라고도 한다.). 『고려사』(권57, 지11, 탐라현).

이후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등의 역사서에 한라산을 언급할 때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실리고 있다.

기존의 연구서나 글 대부분에서는 위 頭無岳을 한자의 뜻 그대로 해석하여 ‘머리가 없는 오름 또는 산’으로 보고, 정상이 머리가 뿔힌 데서 붙여진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頭無岳의 岳을 ‘오름>오름’의 훈독자 차자표기로 본다면 頭無를 한자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頭無도 고유어 ‘두무’ 또는 ‘두미’ 정도를 표기한 음가자 결합 표기로 보았다(오창명, 1998). 그리고 이러한 것은 역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 하여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

한편 필자는 한라산의 별칭으로서의 頭無岳을 언급하면서 이제까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다음의 『성종실록』 기록을 언급한 적이 있다.

② 且沿海頭無岳甚多, 濟州漢拿山, 或名頭無岳, 故俗稱濟州人 爲頭無岳, 或書頭秃也(또한 연해에는 ‘두미오름’이 매우 많은데, 제주의 한라산을 혹 ‘두미오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주 사람을 ‘두미오름’이라 하고, ‘두미’라고도 쓴다.) 『성종실록』(23년 2월 기유)

위 글은 頭無岳이 한라산의 별칭으로서가 아니라 濟州島의 별칭으로 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필자는 왕조실록을 보다가 이와 비슷한 내용이 대역섯 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한라산의 별칭으로서 頭無岳이 아닌 濟州島의 별칭으로서 頭無岳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글은 옛 기록에 보이는 한라산의 별칭인 頭無岳이 한라산의 별칭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별칭으로 쓰였음을 더욱 자세히 밝히고, 그 뜻에 대해서도 필자의 기존 주장을 더 뒷받침할 수 있을 자료를 보태어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2. 頭無岳[두미오름]에 대한 옛 기록

頭無岳[두미오름]에 관한 옛 기록을 살펴보면, 한라산의 별칭으로서의 頭無岳과 濟州島의 별칭으로서의 頭無岳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먼저 전자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후자를 제시하고자 한다.

2.1 한라산의 별칭으로 쓰인 頭無岳[두미오름]

이제까지 한라산의 별칭으로서의 頭無岳[두미오름]은 많이 알려졌다. 대표적인 것이 『고려사』에 보이는 다음의 기록이다.

① 嶺山漢擎在縣南[一曰頭無岳又云圓山。其巔有大池。](진산인 한라산은 탐라현 남쪽에 있다.[한편으론 ‘두미오름’이라고도 하고, 또 ‘듬메’라고도 한다. 그 산꼭대기에는 큰못이 있다.]) 『고려사』(권57, 지11, 탐라현).

이 기록은 후대의 기록들에서 좀더 부연 설명되고 있음은 물론 그 말이 생겨난 연원이나 유래 따위가 덧붙여졌다.

우선 충암 김상헌이 남긴 「제주풍토록」에서부터 1912년에 쓰여진 『신조선전지』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② …… 又山峰之頂，必凹如鑊，陷成泥潦，峯峯皆然故，謂之頭無岳(……. 또 산봉우리가 오로지 오목하여 가마솥과 같이 움푹 패서 진창을 이룬다. 봉우리마다 모두 그러하므로 ‘두미오름’이라 이른다.) 『충암집』(권4, 제주풍토록).

③ 漢擎山，……. 其曰漢擎者，以雲漢，可擎引也。一云頭無岳，以峯峯，皆平也。一云圓山，以穹窿而圓也…….(한라산은 …… 그 것을 ‘漢擎’라고 하는 것은 은하수, 곧 하늘을 잡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두미오름’이라 하기도 하는데, 봉우리마다 모두 평평하기 때문이다. ‘두리메’라고도 하는데 활 모양으로 되어 가운데가 가장 높고 사방 주위는 차차 낮아진 형상으로 둥글기 때문이다.…….) 『신중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④ 鳥在國之正南 而漢擎山峙其中 張左右翼 如一字橫鋪 濟州一鎮 在北而際海 與頭無岳相對……(제주도는 우리나라의 정남향에 있는데, 한라산이 그 가운데에 우뚝 솟아 좌우로 날개를 펼쳐서 한 일자가 옆으로 놓인 것과 같다. 제주는 하나의 진인데, 북쪽에 있어서 바다에 면하고 있어서, '두의오름'과 마주 대하고 있다…….) 『南溟小乘』

⑤ 林子順南溟小乘 鳥在國之正南 而漢擎峙其中 張左右翼 如一字橫鋪 濟州一鎮 在北而際海正與頭無岳相對[頭無擎岳別名]……(임자순의 남명소승에,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정남향에 있는데, 한라산이 그 가운데에 우뚝 솟아 좌우로 날개를 펼쳐서 한 일자가 옆으로 놓인 것과 같다. 제주는 하나의 진인데, 북쪽에 있어서 바다에 면하고 있다. 바로 '두의오름'과 마주 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남사록』(권1).

⑥ 地誌漢擎山在州南二十里其曰漢擎以雲漢可擎引也一云頭無岳以其峰皆平也一云豆毛岳 以山之連絡者非一 而峰頭 皆有池 似貯水器也……(지지에 이르기를, '한라산은 제주 남쪽 20리에 있다. 그것을 일러 한라산이라 하는데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두의오름이라고 하는데, 그 봉우리가 모두 평평하기 때문이다. 또 '두모오름'이라고도 하는데, 산의 연결이 가지런하지 않아서 봉우리에 모두 못이 있어서 물을 저장하는 그릇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남사록』(권2, 25일).

⑦ …… 漢擎山[一名圓山 在南二十里]以其雲漢可攀而擎也故名 峰頭皆平圓有池似釜故又名釜山 俗稱釜爲頭無故又名頭無 峻極于天 雄據數百里 山嶺有池……(…… 한라산[한편으로 '듬메'라고 한다. 남쪽 20리에 있다.] 그 은하수를 붙잡고 잡아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것이다. 산봉우리 맨 위는 모두 평평하고 둥글고 못이 있어 술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마메라고 했다. 세속에서 일컫기를 술을 '두의'라고 하기 때문에 또한 '두의오름'이라고도 했다. 높고 험해서 하늘에 닿을 듯하고 수백 리에 걸쳐 자리잡고 있고, 산꼭대기에 못이 있다…….) 『증보문헌비고』(권22, 여지고10, 산천, 전라도, 제주)

⑧ 峯頂如鑊, 漢擎山峯頂, 皆凹如鑊, 陷成泥濘, 峯峯皆然, 故謂之頭無岳(봉우리 정상이 '가메'(가마)와 같다. 한라산 봉우리 정상은 '가메'와 같이 움푹

패서 진흙탕을 이룬다. 봉우리마다 모두 그러하니, ‘두의오름’이라고 한다.) 『대동운부군옥』(권19, 入聲, 藥, 籤).

⑨ “漢拏山은…峯頭가 平圓하며 其上에 舊時 噴火口가 有하야 一大池를 成함이 釜와 如하 故로 又名은 釜山이오 又名은 頭無[俗稱釜 爲頭無 故名] 오…”(1912, 『신조선전지』(하편, 전남도읍과 명소))

이상은 頭無岳 또는 頭毛岳이 모두 한라산의 별칭으로 쓰인 예들이다.

22 濟州島의 별칭으로 쓰인 頭無岳[두의오름]

조선 『성종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 頭無岳[두의오름]의 기록은 漢拏山을 頭無岳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사람[濟州人]을 頭無岳이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① 訓練院都正邊處寧來啓曰……且沿海頭無岳甚多, 濟州漢拏山, 或名頭無岳, 故俗稱濟州人 爲頭無岳, 或書頭禿也…….(훈련원 도정인 변처녕이 와서 계로 말하기를, “……. 또한 연해에는 두의오름이 매우 많은데, 제주의 한라산을 혹 ‘두의오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주 사람을 ‘두의오름’이라 하고, ‘두의’라고도 씁니다…….) 『성종실록』(23년 2월 기유)

이 내용을 『국역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성종 262 23/02/08(기유) / 도정 변처녕이 경상도 관찰사 하여금 개조한 배의 속도를 시험하게 할 것·제주인을 이용해 왜적을 방어할 것을 청하다》

훈련원 도정(訓練院都正) 변처녕(邊處寧)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평소 경상도(慶尙道)의 배(船)가 그 편리함에 있어서 전라도(全羅道)의 배에 미치지 못함이 매우 심해서 완급(緩急)에 쓰기가 어려우므로, 전라도의 배를 경상도

에 옮겨 정박시켜 놓고 그 모양대로 개조(改造)하도록 청하니, 순변사(巡邊使)에게 명하여 배의 운행이 느린지 빠른지의 형세를 자세히 시험해 보게 하셨는데, 마침 그때가 추운 겨울철이 되어 돌려 정박시키기가 어려운 까닭에 본도(本道)의 수사(水使)로 하여금 편리한지 편리하지 못한지 살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도의 관찰사(觀察使) 이극돈(李克墩)이 일찍이 전라도를 안찰(按察)한 바 있어 반드시 그 실정을 알 것이니, 청컨대 이극돈으로 하여금 수사(水使)와 함께 살펴 보게 하소서. 또 연해(沿海)에는 두무악(頭無岳)이 매우 많은데, 제주(濟州)의 한라산(漢拿山)을 혹 두무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세속에서 제주 사람을 두무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두둑(頭秃)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다만 국가(國家)에서 수적(水賊)은 이 무리들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하기 때문에 지금 바야흐로 추쇄(推刷)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배를 잘 다루니, 만약 그들을 활용한다면 왜적(倭賊)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니, 진실로 유익(有益)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선척(船隻)의 일은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도록 하고, 두무악(頭無岳)의 일은 해사(該司)로 하여금 논의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특히 이 기록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漢拿山을 頭無岳이라 했음은 물론 제주 사람을 頭無岳이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頭秃(두둑)이라고 썼다는 것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頭無岳이라 하고 頭秃이라 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밝히도록 한다.

다음에 보이는 기록은 이보다 앞선 『중종실록』의 기록이다. 頭無岳의 협주에 涸人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頭無岳은 오름 이름이 아니라 지명 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일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柳順汀啓曰……頭無岳[涸人]以海採爲業 船載妻子 滄海爲家……(유순정이 계로 말하기를, “…… ‘두피오름[물 위를 헤엄치는 사람]은 해산물 채취를 업으로 삼아 배에 아내와 자식들을 태우고 넓은 바다를 집으로 삼습니다…….”) 『중종실록』(권11, 5월 己酉)

이 내용을 『국역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④ 《중종 011 05/06/25(기유) / 남방 민의 생계를 위해 내지 해구에서 멀지 않은 곳은 어업을 할 수 있게 하다》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신이 남방의 왜적 방비하는 일을 보건대, 각 포(各浦)를 방어하자면 형세가 부득불 수륙의 군사를 합하여야 하니, 청컨대 병사(兵使)로 수사(水使)의 직함을 겸하게 하고, 두무악(頭無岳) 【곧 잠수하는 사람.】은 해채(海採)로 업을 삼아 배에 처자를 싣고 창해(滄海)로 집을 삼는데, 지금 왜변으로 인하여 관가에서 그 배를 구류하자 살아갈 수가 없어 도산(逃散)하려고까지 하니, 바다 밖 절도(絶島) 같은 데는 금해야겠지만, 사람이 척후(斥候)하여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왕래를 금하지 마소서. 또 김해(金海) 지경에 도요저리(都要渚里)가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이 무려 1천여 명이나 되어 스스로 한 마을을 이루고 해채로 살아가니, 일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배가 가볍고 빨라서 국가에서도 힘입어 쓸 수가 있으니, 해안 가까운 곳에는 왕래를 금하지 마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명하여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김수동(金壽童) · 성희안(成希顔) · 노공필(盧公弼) · 민효증(閔孝曾) · 권균(權鈞) · 이계남(李季男) · 이손(李蓀) · 김응기(金應箕) · 홍경주(洪景舟) · 신운무(辛允武) · 신용개(申用溉) · 정광필(鄭光弼) · 박열(朴說) · 홍숙(洪淑) · 경세창(慶世昌) 등이 의논드리기를, “전에는 육군과 수군의 방수(防守)하는 형세가 같지 않기 때문에 병사·수사가 서로 관섭(管攝)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왜적을 방비하는 데에 경상·전라 두 도의 육군이 각포에 나누어 방수하여 수군·육군이 형세를 합하였으니, 마땅히 병마 절도사가 수군 절도사를 겸하게 하여 힘을 합해 방비하여야 합니다. 두무악이나 도요저리의 거민은 모두 전산(田産)이 없고 오로지 해채로 업을 삼는데, 만일 일체 금단하면 의지하여 살 것이 없습니다. 또 그 배가 경쾌하고 운행하기에 편하여, 만일 사변이 있으면 쓰기에 또한 긴요하니 마땅히 무휼하여 편안히 생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다 밖의 절도 같은 데는 어채(漁採)를 금하는 것이 마땅하나, 내지(內地) 해구(海口)에서 멀지 않은 곳은 금하지 마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이 외에도 頭無岳이라는 말은 조선왕조실록에 더 나타난다.

가령 『중종실록』(5년 8월 계묘)에 頭無岳船[두미오름 배], 『중종실록』(6년 10월 기묘)·『성종실록』(17년 11월 계해)에 頭無岳[두미오름], 등으로 나타난다.

⑤ 《중종 012 05/08/20(계묘) / 비어 방략 아홉 가지를 경상도 병사에게 내리다》

비어 방략(備禦方略)을 경상도 병사(慶尙道兵使)에게 내려주었다. …… 셋째, 사랑(蛇梁)에 변고가 있으면 의령 현감(宜寧縣監)이 본현의 군사를 거느리고 삼천진(三千鎭)에 달려가서 사천 현감(泗川縣監)과 더불어 병력을 합세하고 근처 두무악선(頭無岳船)을 많이 모아서 들어가, 구원하려는 성세(聲勢)를 크게 벌여서 성원할 것. …… 『중종실록』(5년 8월 계묘)

⑥ 《중종 014 06/10/02(기묘) / 정언 박전이 경상도의 변방 사정을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이충용(李忠勇)과 정언 박전(朴全)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박전이 아뢰기를, “……. 넷째, 연해(沿海) 각 고을의 두무악(頭無岳) 등은 살 수가 없어 처자를 이끌고 배를 타고 떠도는 자가 흔히 있습니다. 각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그들을 맞아 편안히 살게 하고 부역을 가볍게 함으로써, 수전(水戰)에 대비함이 어떠하겠습니까?” …… 『중종실록』(6년 10월 기묘)

⑦ 《성종 197 17/11/22(계해) / 경상도 관찰사 손순효가 연해의 방수 대책을 글로 올리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손순효(孫舜孝)가 글을 올리기를, “……. 신이 곤양·사천·고성(固城)에 이르러 제주(濟州)에서 와 사는 두무악(頭無岳) 등 남녀를 불러 모아놓고 술을 먹이고 국령(國令)을 유시(諭示)하며, 또 수로(水路)를 자세히 물으니, 각각 소견을 아뢰는데, 못사람의 말이 하나 같았습니다. ……. 곤양·진주·사천·고성에 두무악(頭無岳) 등을 나누어 두면, 모두 배를 잘 부려서 물결에 달려가는 것이 나는 새와 같으니, 그들을 어루만져 편히 살게 하면 급할 때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도외시(度外視)하며 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매년 봄·가을에 병사(兵使)·수사(水使)가 삼천진에 모여서 크고 작은 맹선(猛船)과 두무악 등의 작은 배를 가지고

수전(水戰)을 서로 익히면 급할 때에 쓸 수 있을 것이니, 또한 하나의 계책입니다. …… 그리고 두무악 등도 물위에서 붙어살며 정처 없이 유동하고 옮기므로, 급할 때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 『성종실록』(17년 11월 제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지은 『한국고전용어사전』(전5권)에서는 頭無岳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민족문화추진회’ 사이트(<http://www.minchu.or.kr>)의 ‘일반자료실’의 ‘고전용어정리’에 ‘頭無岳’ 항목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⑧ * 두무악(頭無岳) : 남방 해변에서 해채(海採)를 생업으로 하는 제주인(濟州人)으로 이들은 조주(操舟)·잠수(潛水)에 능하였다. 두무악은 본디 한라산(漢拿山)의 이명(異名)이다.

☞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제주목(濟州牧) / 성종실록(成宗實錄) 二十三年二月乙酉 / 중종실록(中宗實錄) 五年六月己酉

1996년에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나온 『한국한자어사전』(권4:864)의 頭無岳과 頭禿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⑨ 【頭無岳 두무악】 ㉠자맥질을 하는 사람. 또는 제주도 사람을 가리켜 이르는 말. …… ㉡한라산(漢拿山)을 달리 이르는 말. ……

【頭禿 두독】 ㉠“頭無岳”의 ㉠㉡와 같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頭無岳과 頭禿을 차차어라 하고 ㉠이라고 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 사전의 ‘일러두기’에 어휘의 독음의 경우 “차차어·이두·구결은 고유의 독음에 따랐다.”고 했으면서, 현대의 한자음을 따랐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頭無岳이 제주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쓰인 것이다.

3. 頭無岳의 해독과 의미

3.1 頭無岳에 대한 기존 견해

頭無岳에 대한 논의의 출발에는 양주동을 뺄 수 없다. 양주동은 그의 『고가연구』(1943, 박문출판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주도」의 原稱「耽羅」는 「돛너」, 漢拏山의 原名「頭無岳」(圓山)에 依한 名稱이다.(『고가연구』 109쪽)

頭無는 圓의 뜻을 가진 말로, ‘돛’으로 읽었다. 그리고 岳은 山의 뜻을 가진 말로, ‘뫼’로 읽었다.

북한의 국어학자였던 류렬도 그의 (1983:424)에서 頭無를 ‘두무/두모’(tumo/tomo)의 음차표기로 보고, ‘등글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양주동의 논의는 박용후와 배우리 등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한라산(漢拏山)의 이름을 보더라도 ‘원산(圓山)’ ‘두무악(頭無岳)’이 있는데, ‘원산’은 둥근 산을 뜻하는 한자 표기요 ‘두무악’은 ‘돛뫼’로서 ‘두무’는 ‘돛’의 이두식 표기이다. 그러므로 ‘원산’이라는 한문식 이름과 ‘두무악’이라는 이두문식 이름은 다 둥근 모양의 산을 뜻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두미’의 한자 이름 ‘頭毛’도 한라산의 다른 이름 ‘頭無’와 같은 표기이다. ‘돛’의 한자 음이 없기 때문에 ‘돛’이 ‘두무’ ‘두모’ 등으로 한자 표기가 된 것이다.(박용후, 1992: 174)

제주의 한라산 漢拏山도 원래 ‘돛뫼 頭無岳 頭毛岳(두무뫼)’로 ‘둥근 산’의 뜻이다.(1994년:①179)

제주도의 옛 땅 이름이 ‘탐라’인데, 양주동은 이를 ‘돛너’로 보고, 이 이름이 한라산의 원이름인 두무악頭無岳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 …… 이를 보면, ‘두무’가 ‘둥근 圓’의 뜻을 지녔을 가능성을 쉽게 짚어 볼 수 있다.(배우리, 1994년:②29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頭無岳은 圓山을 달리 표기한 것이고, 이는 모두 ‘뒤편’ 정도로 읽을 수 있고, ‘둥근 산’의 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비슷한 뜻을 가진 것이기는 하지만 頭無岳이 바로 ‘둥근 산’을 뜻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았다.

오창명(1998:47-49)에서는 頭無岳을 ‘두무오름·두의오름’으로 읽고, 중세국어 ‘뒬/두멍’(현대국어는 ‘두멍’)에 대응하는 음가자 표기로 보았고, 岳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로 보았다. 그래서 단순히 ‘둥근 산’이나 ‘둥근 오름’의 차자표기로 보지 않았다. 특히 같은 뜻으로 쓰인 頭禿(두독: 두피의 차자표기)과 釜岳(부악: 가마메의 차자표기)의 표기를 중시하여 頭無는 ‘두피’ 정도의 차자표기로 보았다.

한편 소설가 현기영은 현기영 신작 에세이 『젊은 대지를 위하여』(1989, 청사) 속에 실린 ‘한라산과 문학’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백록담은 알다시피 화산의 분화구이다. 정상이 움푹 패어 들어갔다고 해서 옛 사람은 한라산을 무두악(無頭岳)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머리가 없는 것은 한라산 정상만이 아니다.

이 글에서 무두악(無頭岳)은 頭無岳(두무악)을 잘못 이해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옛 문헌에서는 頭無岳(두무악)으로 표기되어 있지 무두악(無頭岳)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상이 움푹 패어 들어간’ 것을 ‘머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한 것도 잘못이다.

이러한 것은 최근에까지도 그대로 인식되어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 관련 각종 사이트에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동아일보’(2003년 4월 18일)의 서평 일부이다. 역시 無頭岳이라 쓴 것은 잘못이다.

봉우리가 평평해서 두무악(頭無岳) 또는 무두악(無頭岳), 산세가 활이나 무지개 같이 둥글어서 원산(圓山), 꼭대기에 못이 있는 모습이 가마솥 같아서 부악(釜岳)…. 모두 한라산의 다른 이름이다.

3.2 頭無岳에 대한 해독과 의미

기존의 頭無岳에 대한 해독과 뜻에 대해서는 3.1에서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논의는 '頭無岳 = 圓山'으로 보고, '듬뿍' 정도로 읽고, '둥근 산'의 뜻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창명(1998)에서는 '頭無岳 = 圓山'이라는 등식보다는 '頭無岳 ≍ 圓山' 정도로 보았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기존의 역사 자료를 자세히 해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앞의 2.1의 예문 ②를 보면 “산봉우리가 오로지 오목하여 가마솔과 같이 움푹 패서 진창을 이룬다. 봉우리마다 모두 그러하므로 ‘두미오름’이라 이른다.”고 하였다. ③에서도 “‘두모오름’이라 하기도 하는데, 봉우리마다 모두 평평하기 때문이다. ‘두리메’(듬메)라고도 하는데 활 모양으로 되어 가운데가 가장 높고 사방 주위는 차차 낮아진 형상으로 둥글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나머지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된다.

특히 2.1의 예문 ⑦을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산봉우리 맨 위는 모두 평평하고 둥글고 못이 있어 솔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마메’라고 했다. 세속에서 일컫기를 솔을 ‘두미’라고 하기 때문에 또한 ‘두미오름’이라고도 했다.”는 설명을 보면, ‘솔’(혹은 가마솔)과 비슷하게 생겨서 ‘가마메’(釜岳)라 했고, 세속에서는 이를 ‘두미’[頭無]라고 했기 때문에 ‘두미오름’[頭無岳]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설명은 2.1의 예문 ⑧과 ⑨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⑧의 “봉우리 정상이 ‘가메’(가마/鑊)와 같다. 한라산 봉우리 정상은 ‘가메’와 같이 움푹 패서 진흙탕을 이룬다. 봉우리마다 모두 그러하니, ‘두무오름’이라고 한다.”는 것이나 “漢擎山은…峯頭가 平圓하며 其 위에 舊時 噴火口가 有하야 一大池를 成함이 釜와 如하 故로 又名은 釜山이오 又名은 頭無[俗稱釜爲頭無 故名]오…”는 것도 모두 같은 설명이다.

한편 『성종실록』에 보이는 “또한 연해에는 두미오름[頭無岳]이 매우 많은데, 제주의 한라산(漢拿山)을 혹 두미오름[頭無岳]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주 사람(濟州人)을 두미오름[頭無岳]이라 하고, 두미[頭禿]라고도 씁니다.”는 기록은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 곧 頭無岳은 頭禿이라고

도 쓴다는 것이다. 禿은 훈은 ‘의-/미-’이다. 그렇다면 頭無岳은 ‘두의오름’, ‘頭禿’은 ‘두의>두미’ 정도로 읽을 수 있다.

頭禿을 한자어로 이해하면 ‘머리가 민’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頭無岳을 한자어로 보고 해석했을 때의 ‘머리가 없는’의 뜻과는 맞지 않게 된다.

이상의 여러 자료로 볼 때 頭無岳은 ‘두의오름’ 정도로 읽을 수 있고, 그 뜻은 ‘두의’(중세어는 ‘듬기’, 현대어는 ‘두명’)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가마솔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오름이라는 데서 ‘두의오름’이라 했다는 것이다.

한편 圓山은 頭無岳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 ‘듬메’ 또는 ‘두리메’ 정도로 읽을 수 있다. 이때는 ‘등근 산’의 뜻으로 볼 수 있다.

4. 頭無岳과 濟州島, 濟州人·濟州島人

頭無岳이 위 2.2에서와 같이 濟州人 또는 濟州島의 별칭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쓰인 頭無岳은 2.2의 예문 ③과 같이 涸人의 뜻으로 쓰였다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涸(수)라는 한자는 ‘물 위를 헤엄쳐 가다, 물 위를 떠서 가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그러므로 涸人(수인)이라 하면, ‘물 위에서 헤엄치면서 고기를 잡거나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 정도를 뜻한다. 아마 옛 문헌에 보이는 鮑作, 鮑作人과 潛女 등과 비슷한 뜻으로 쓰인 말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제주의 포작인[濟州鮑作人], 제주에서 출래한 포작인[濟州出來鮑作人]’이라는 말이 자주 나타나고, 이들은 대부분 남해안 일대에 흩어져 산다고 되어 있다. 조선 『중종실록』과 그 이전에 나오는 頭無岳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鮑作人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頭無岳은 한라산의 별칭으로도 쓰이고, 제주도의 별칭으로 쓰였다

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 사람의 별칭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鮑作은 표준어 ‘보재기’에 대응하는 차자표기로, 단순히 ‘바다 속에 들어가서 조개, 미역 따위의 해산물을 따거나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는 것이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제주사람의 뜻으로 쓰인 頭無岳과 頭無岳船 등은 조선 중종실록 이전에 주로 쓰였다는 것이고, 鮑作人 또는 鮑作船 등은 조선 성종실록 이후에 주로 쓰였다는 것이다. 특히 鮑作人은 굳이 제주인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나 경상도 등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소금에 절이는 일을 하는 사람 등의 일체를 일컫는 말이다.

頭無岳에 대해서는 앞의 2.2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鮑作人和 鮑作船 등에 대해서 일부를 추리면 다음과 같다.

『숙종실록』(28년 7월 신유) : 鮑作, 潛女

『성종실록』(14년 12월 을축) : 鮑作人

『성종실록』(16년 4월 계해) : 鮑作干, 鮑作人

『성종실록』(16년 4월 신묘) : 鮑作人

5. 마무리

지금까지 옛 문헌에 나타나는 頭無岳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頭無岳이라는 표기는 한라산의 별칭으로 쓰인 경우와 제주도, 또는 제주사람을 일컫는 이름으로 쓰인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이전에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독음과 뜻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하나는 ‘둠뫼’로 읽고 ‘둥근 산’이란 뜻을 가진 말이라 설, 또 하나는 ‘두미오름’으로 읽고 형체가 ‘두멍’을 닮은 산이라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한자식으로 해석하여 ‘머리가 없는 산’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억지 해석이다.

후자의 경우, 곧 頭無岳이 제주 사람 또는 제주도를 뜻하는 별칭으로 쓰였다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頭無岳은 頭禿으로 쓸 수 있다는 기록, 頭無岳은 釜岳을 달리 썼다는 기록 등으로 볼 때, ‘두미오름’ 정도의 차차표기라는 것이다. 이는 원래 한라산의 별칭으로 쓰였으나,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도나 그곳 출신의 제주사람을 일컫는 이름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기존에 소개된 적이 있으나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참고문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박용후(1992),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배우리(1994),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① 산·강·바위 편』, 토담.

배우리(1994),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② 마을·골짜기·들 편』, 토담.

양주동(1943), 『고가연구』, 박문출판사.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한국한자어사전』(199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